

군·관 공동 ‘계룡대 환경전시회’ 개최

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와 육군본부 공동으로 환경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남 계룡대(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 가 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친환경상품의 거대수요처인 육군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 화장지, 전자제품 등 친환경 생활용품에서부터 절수형 수도꼭지, 하수관, 창호 등 친환경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총 250여개 품목이 전시됐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간에 ‘녹색구매 협약’을 체결하여, 육군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육군에서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녹색구매를 제도화하고,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평가 및 군 장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및 녹색구매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구매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군에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사병당 0.8명인 내무반을 2명으로 확대하는 현대화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행사를 계기로 공사과정에서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예병사를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팬 사인회도 함께 개최했으며 학생, 주부 및 지역주민 등 일반인 관람객 등이 대거 참석했다. ◀



▲ 계룡대 환경전시회 개막식



▲ '환경부 - 육군본부 녹색구매 협약식' (좌: 환경부장관, 우: 육군참모총장)



▲ 환경부장관 - 육군참모총장 업체방문